

40년 학문 여정의 결실

《현대 사회철학과 한국사상》 펴낸 신일철 교수



신일철 교수

원로철학자 신일철(66, 전 고려대) 교수가 최근 《현대 사회철학과 사회사상》(문예출판사)을 펴냈다. 지난 2월 40년의 강단생활을 마감한 신교수의 정년퇴임기념논문집인 이 책에는 그의 철학적 관심과 학문여정이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신교수의 학문여정에서 두드러지는 주제는 '민족·사회·국가'. "철학이야말로 인생과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강조하는 신교수는 자신이 살아가는 땅과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고 역설한다. 신교수가 특별히 사회철학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신교수는 특히 최근들어 하이에크(F. A. Hayek)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붕괴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다. 신교수는 사회란 인위도 자연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와 유사하다는 하이에크의 사회관에 주목한다. 사회를 개혁하고 만들 수 있다는 설계주의적 오류가, 좋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관료화로 치닫게 했고 붕괴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한 국가 내에서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문제에 대한 논의도 흥미롭다. 재분배를 통한 복지의 실현만이 여타의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역설한 롤즈(J. Rawls)와, 지나친 과복지(過福祉)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한 노직(R. Nozick)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비교함으로써 신교수는 우리 사회에 맞는 '정의론(正義論)'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모색하

신일철 교수의 정년퇴임기념논문집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그의 학문적 결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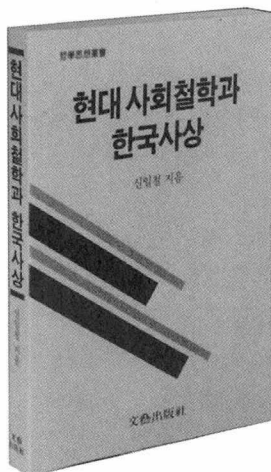
고 있다. "서양철학을 철저히 앞으로써 한국사상의 주체성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서양철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곧 한국사상을 밝히는 일에 닿아 있었기에 신교수는 이른 시기인 1960년대 한국사상연구회를 창립하고 《한국사상》을 발간하는 등 우리 민족의 사상을 탐구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왔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도 꾀를 같이하는데, 그는 주체사상을 한마디로 "강권사회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잘라 말한다.

신교수의 우리 사상에 대한 관심은 주로 도산 안창호·단체 신채호 등 근대 한국사상의 주류를 이룬 민족주의사상을 재발견하는 데로 모인다. 여기에는 일제시대 《동아일보》 상해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선친 신연준씨의 영향이 크다. "도산은 예수 다음가는 위인"이라고 했던 선친의 말은 아직도 그의 가슴에 강하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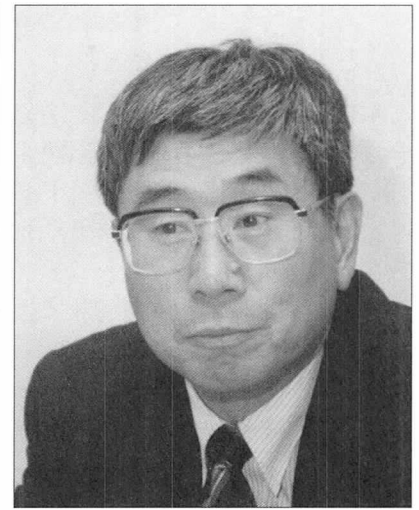
중학교 때 철학입문서 한권을 읽은 것으로 철학이 주는 지적 만족에 푹 빠져버렸다는 신교수의 철학적 관심은 결국 민족주의에서 출발해 사회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갔다가 민족주의로 회귀한 셈이다.

대학원 강의 외에는 달리 바쁠 일이 없다는 신교수는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는 한 그간의 연구작업들을 정리하고 완결짓는 일에 매달릴 것이라고 밝힌다. — 박남정 기자



'신명풀이'의 연극미학 해명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 펴낸 조동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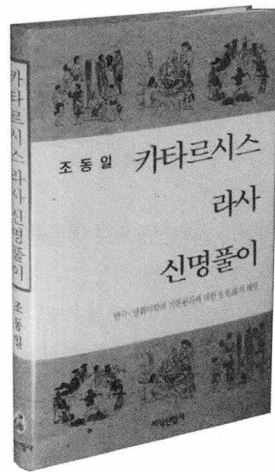
조동일 교수

조동일 교수는 이번 책에서 한국 전통연극의 '신명풀이'가 연극미학에서 어떻게 기본원리로 작용하는지 밝힌다.

한국문학사에 대한 통사체계 수립에 이어 세계문학사의 이론을 세우는 야심찬 기획에 뛰어난 조동일(58, 서울대 국문학)교수가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지식산업사)를 내놓았다. 지난해 펴낸 《세계문학사의 허실》이 세계문학사의 새로운 이론체계를 세우겠다는 '출사표'라면, 이 책은 첫번째 '전과'인 셈이다.

조교수는 한국전통연극의 특징인 '신명풀이'가 연극미학의 기본원리로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연극미학의 다른 기본원리인 '카타르시스' '라사'와 비교·검토를 통해 해명했다. 세계의 연극미학의 기본원리가 작품의 전개, 언어의 사용, 관중의 구실, 세계관의 지향 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성을 밝혔다. 등장인물과 관중 사이의 경쟁에서 등장인물이 관중을 압도하면 '카타르시스연극'이, 양쪽이 대등하면 '라사연극'이, 관중이 위세를 떨치면 '신명풀이연극'이 된다.

조교수는 이렇듯 세가지 연극미학의 원리가 다른 양상을 띠는 이유를 세계관의 지향이 서로 다른 것과 아울러 시대성격이 서로 다른 데서 찾는다. 카타르시스연극은 그리스인의 세계관과 고대의 시대성격이 합쳐진 결과이고, 라사연극은 인도인의 세계관과 중세의 시대성격이 결합한 것이며, 신명풀이연극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시대성격이 한국인의 세계관과 조응한 결과다.



세계연극사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자연스럽게 영화판으로 이어진다.

"현대는 영화전쟁의 시대입니다. '카타르시스' 원리에 입각한 미국영화가 전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미국영화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어쭙잖게 '카타르시스' 원리를 흉내내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명풀이'를 영화만들기에 창조적으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조교수는 '신명풀이' 이론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학자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이 일은 한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지만,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우리 것에 대한 폄하와 인문학을 도외시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연극영화와 교수 가운데 한국연극 전공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의 비교문학론 연구과정 개설 요구가 국제경쟁력 제고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조교수가 '민중주의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안목이 협소한' 국문학자는 아니다. 그가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원리로 내세운 '생극영화'는 '신명풀이영화'를 중심으로 '카타르시스영화'와 '라사영화'를 한데 아우른 것이기 때문이다.

조동일 교수는 공개강의를 통해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독자가 관중으로 회극에 지나지 않는 이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공연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신명풀이'를 함께 해야 그가 제시한 이론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까닭이다.

— 최성일 기자